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편그라운드에 1억원 예산 확보...2026년 지역맞춤형 공공기관 선정"

최달수 기자 입력 2026. 2. 13. 09:24

오는 3월부터 천문, AI 등 10개 분야 '숙박형 캠프' 22회 예정...사업 규모 대폭 확대
2025년 참여자 만족도 98% 기록...'교실 밖 미래교육'거점으로 우뚝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편그라운드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맞춤형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이로써 남양주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2024년 코딩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자기주도코칭, 천문교실 등 1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 만족도 98%를 기록했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 공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청소년 캠프를 총 22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어 ▲천문 ▲스포츠 ▲정신건강 ▲AI ▲환경 ▲패션디자인 ▲뮤지컬 등 10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경기공유학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효진 센터장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형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과 자기 성장, 정서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지역 기반 미래 교육 모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약용 펀드라운드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유의미한 성장을 이끄는 미래 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약용 펀드라운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청소년 시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3월부터 정약용 펀드라운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